



2021년 10월 17일(제1057호) 연중 제29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일방통행(一方通行)”

언젠가 주일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기도 나무’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적어 나무에다 걸어두면,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는 프로그램이었지요. 순식간에 나무에 다양한 지향들이 걸리게 되었고, 저는 하나씩 그 지향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주일학교 친구들의 솔직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명문대 진학!’,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주시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이런 지향도 있었습니다. ‘하느님! 성당에 와이파이가 터지게 해주세요!’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다가와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모습을 보며 기도 나무에 매달려있던 지향들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기도 나무의 지향들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일방통행의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의 청을 접하며 다른 열 제자처럼 불쾌한 마음만을 가지기보다는, 나 또한 일방적인 바람만 가득 담아 하느님께 청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청원들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적잖게 주님께서 이루신 ‘잔’을 망각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잔은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잔의 이면에 깃든 희망 또한 상징합니다. 부활, 파스카의 신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잔’의 한 측면만을 바라보거나, 심지어 주님의 ‘잔’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상의 ‘행복’만을 지향한 채 여러 가지 것들을 줄줄이 청하곤 합니다. 성당에 와이파이를 청하던 친구의 내용처럼 ‘주식 오르게 해주세요.’, ‘로또 번호 6개 맞게 해주세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등등처럼 말이지요.

사격에 앞서 영점조정(零點調整)을 하듯이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하느님의 바람도 고려한다면, 참다운 ‘하느님과 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의 잔을 앞두고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성부께 청하셨던 예수님의 바람을 떠올리며 말이지요.

어쩌면 하느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모두 은총인 이유는 내가 무엇을 청하든 그보다 더 좋은 것, 결코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것,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청하고 계신가요? ‘기도’로 포장하여 일방통행을 하고 계시다면 영점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동우(요한보스코) 신부
태릉(28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53,10-11
- 회 답 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제 2 독 시** 히브 4,14-16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
- 복 음** 마르 10,35-45
- 영 성 제 송**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열 번째 시한

더구나 그들은 먼바다에 나가 본 적이 없고, 대부분은 배를 조종할 줄 모르며, 다만 제가 항해술이 능통한 자로 그들을 설득시켰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조선의 두 나라 사이에 약조한 것이 있습니다. 즉 조선 배가 국경을 넘어 중국 해변에 들어가면 중국에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잡아 북경을 거쳐 조선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만일 조사해 보고 죄가 있음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죽이도록 되어 있고, 또 중국 배에 대하여도 조선에 오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대한 경의와 인자하심을 기억하시는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가 무사히 강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실 줄 희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승님께 몇 가지 청할 것이 있는데, 혹 저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시면 컴퍼스, 철필(잉크 없이 글씨를 쓸 수 있는 검은 철심이 든 필기구), 세계 지도 특히 황해와 중국과 조선의 해변을 자세히 그린 지도, 그리고 눈을 보호하는 중국식 녹색 안경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극히 공경하올 사부님께 무익하고 지극히 부당한 종 김해 김 안드레아 올립니다.

추신 :

조선에서는 어린 아기들의 대부분이 반점(斑點)으로 얼굴이 흉해지는 병(즉 천연두)으로 죽어 가는데, 그 병을 퇴치할 수 있는 처방을 저에게 명확히 적어 보내 주시기를 스승님께 청합니다.

열한 번째 시한

하느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외방전교회 대표 리브와 신부님께

(서울에서), 1845년 4월 6일

공경하올 신부님.

제가 아직 중국에 있었을 때, 몇몇 주목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것인데, 조선에 계신 신부님들이 포졸들의 손에 자수한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고, 또 신자들이 배반자를 제외하고 마치 신부님들을 경멸하고 저버린 사람들처럼 비난받고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저게 너랑 무슨 상관이나.

저게 너랑
무슨 상관이나.

그들이 원한다고,
좋아 보인다고.

아니. 저건
너랑 아무 상관
없는 것들이다.

너는,
나를 따라라.



성화이야기

이씨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



▶성당 내부



◀
스티그마를
받는
프란치스코
성인 그림

지난주에 이어서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 그려진 성인의 생애를 그린 성화를 살펴보겠다. 성프란치스코 성당의 위층부는 28개의 성인의 일생 연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25개는 르네상스의 시작을 열었다고 일컬어지는 지오토가 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늘에 천사들의 날개에 싸인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성흔을 받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보인다. 예수님의 상처로부터 나오는 빛이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른쪽에 앉아있는 인물은 이 모든 일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모든 그림은 1300년경 제작, 270x230cm, 지오토 작, 프레스코화)

김은혜(벨리사벳)



▶새들에게 설교하는
프란치스코 성인

새들에게 설교하는 성인을 그린 것으로, 왼쪽의 프란치스코회 수사가 이 광경에 놀라고 있다.

◀
세상의 것들
포기하는
프란치스코 성인



속세, 즉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기하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왼쪽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가진 옷마저 벗어주고 있다. 인물들뿐 아니라, 배경의 건물까지 양쪽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합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9주일: 중무 율형식 신부

◆ 교구장 동정

-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및 군중교구 개막 미사
때·곳: 10월 17일(주일) 10: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이기자(27사단) 성당 신임신부 방문
때: 10월 18일(월)

◆ 군중교구 사무직원 모집

- 자격 : 영상 촬영 및 음향 기술, 영상 편집 가능자, 운전면허(1종 보통) 보유자
- 인원 : 1명
- 접수 : 10월 27일(수)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군중교구 홈페이지(gunjong.or.kr) 참조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